

2022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설문조사 결과(종합)

- 설문기간 : 2022.11.23.(수) ~ 2022.12.11.(일)
- 설문대상 : 참가자 모두
- 설문방법 : 사제 - 지면, 그 외 - 온라인 설문(구글 폼)

<설문응답>

	사제	교리교사	청년	학생	부모	총 계
신청자 수	87명	542명	404명	965명	329명	2,327
응답자 수	82명	156명	99명	65명	59명	461
응답비율	94.3%	28.8%	24.5%	6.7%	17.9%	19.8%

<공통질문>

Part A. 식전행사

1. 식전행사 (부스, 오픈스테이지, 특설무대)는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255명(55.3%)	99명(21.5%)	105명(22.8%)	2명(0.4%)

[대상자별 세부사항]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사제	25명(30.5%)	27명(32.9%)	28명(34.2%)	2명(2.4%)
교리교사	94명(60.3%)	27명(17.3%)	35명(22.4%)	·
청년	50명(50.5%)	19명(19.2%)	30명(30.3%)	·
학생	50명(76.9%)	11명(16.9%)	4명(6.2%)	·
부모	36명(61.0%)	15명(25.4%)	8명(13.6%)	·

1-1. 1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장소 관련
부스 규모 저금 더 확장(인원에 비해 로테이션 안돌아감)
단시간에 많은 인원을 소화하기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인원에 비해 부스크기가 작았어요.
오픈스테이지 같은 경우, 노래뿐만 아니라 춤 등 다양한 장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더 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설고해소와 장기자랑 무대가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장소가 제약이 있다 보니 두루 체험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공간 활용의 문제여서 그런지 부스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 특설 무대는 외진 곳에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었다.
부스가 인원에 비해 너무 적고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에서 하면 좋았을 것 같다.
특설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계단 하나를 통해서 가야하는데 계단에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고 하다 보니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노래방에 현장접수가 아니라 사전 접수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사람은 많은데 공간은 좁고 부스도 부족했으며 즐길 거리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장소가 너무 좁고 부스수도 너무 작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와 너무 먼 주제만 있었다.
공간이 좁다보니 주변에서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음(식당은 멀고 좁고),
참여자에 비해 부스 수가 부족해서 아쉬웠음. 부스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미 부스 안에 참여자, 대기자가 포화상태라 참여 엄두가 안났음. 부스 활동에 지정된 시간 자체는 적당한 듯 싶었으나, 부스 수도 적고 사람도 많아 실 참여할수있는 부스가 없어서 대기 혹은 구경만 하다 시간이 끝나서 짧게 느껴짐
마주보는 부스끼리의 간격이 좁아져 사람이 많을 때는 이동이 너무 혼란스러웠으며, 사람 때문에 무슨 부스가 있는지 더 잘 안보였음. 그래도 설치된 부스들은 재미있고 유익했음.
부스 공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장소가 좀 협소하여 충분히 즐기지 못해서 아쉬웠다.
인원에 비해 체험부스 규모가 너무 작음.
부스 간격이 너무 좁았고 부스 공간이 좁았습니다.
물리는 인파에 운영 부스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축박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같다.
정신없고 인원 대비를 못한 것 같았다.
인원수 대비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껴짐

주차장 가장자리로 부스를 늘어놓았으면 동선이 더 자유로웠을 듯하다. 부스와 부스 간격도 좁고 대기하는 청년들이 많아 충돌이 많았다.
조금만 늦게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예약시스템 때문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장소도 너무 협소했음. 푸드트럭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부스 간격이 좁아서 너무 복잡했습니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시간도 더 길었으면 좋겠다.
부스의 수가 적고 동선이 불편했습니다. 참여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었던 것도 불편했습니다.
공간과 부스 부족
동선이동 불편
시간 관련
나중에 오니깐 할게 없었음
시간이 짧아서 다양하게 접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본당은 도착이 늦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일찍 온다면 점심식사시간이 걸려서 부득이 식사 후에 참여했는데 식전행사를 즐길 수 없어 아쉬웠어요.
시간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사전 안내와 책자 안내가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시작 시간 자체가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고 나면 식전행사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시간대인거 같습니다. 아니면 간식판매 이런 것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구요(과자 제공이 아닌).
충분히 둘러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ㅠㅠ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체험하기가 어려움,
2번에 부스를 골랐지만 오픈 스테이지, 특설무대 모두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참여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네요^^
시간이 더 길었으면, 더 많은 활동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을 것임.
거리가 먼 성당은 늦게 도착해지다보니 충분히 활동을 못하였습니다. 입장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시간까지 더 오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분배가 부적절했다. 부스를 충분히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동선 가이드 라인이 없어 정체 구간이 생겨 혼잡했다.
시간이 짧다.
늦어 참석하지 못함
12시에 밥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밥 먹는 시간이 행사시간에 포함되어 부스 행사를 제대로 참여 못 해 아쉬웠습니다.
사람에 비해 부스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스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장소가 너무 좁았습니다
좀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게 시간조정 및 도착시간 통일 같은 게 필요한 거 같다
특설무대 등록시간 부족

내용 관련
행사 참여 인원수에 비해 부스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달고나처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부스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부스 재료가 모두 마감되었거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야외행사를 길게 하거나 아예 학생들과 청년들의 토론회나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하거나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래 준비했는데 선착순 마감해서 못 부르게 억울하다.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 수용 못하는 이벤트를 왜 하는 것인가. 선물까지 걸려있었는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진행을 하든지.
더욱 다양한 콘텐츠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해볼 부스가 없었다.
특설무대에 당일 참가신청으로 하다 보니 신청하고도 시간상 참여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 점이 아쉬웠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스활동이 몇 군데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거나 하고자 하는 곳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여가 안 되고 학생들이 흥미를 꾸는 부스가 부족했다.
조금 더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겠고, 더 넓은 곳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좀 더 재미있었으면 합니다.
오픈스테이지며 특설무대가 조금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바자회 분위기였음.
즐길거리가 적었다.
학생들이 즐길만한 행사나 체험이 딱히 없었음.
부스 좀 더 활동 위주 였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먹거리도 더 다양하면 좋았을 거 같구요!!
젊은이의 날이 아닌 어린이 날 행사같은 눈높이 수준
참여할만한 부스 수가 적고 흥미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포스트게임의 종류 수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설무대에 대한 정보나 어떤 행사를 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해소와 달고나, 노래방 위치 겹쳐 분위기 상충
행사 정체성 불분명,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족
부스에 대한 안내 부족
인기 부스에 인원집중
부스 내용 식상

기타
오픈스테이지 공연 순서가 바뀐 것을 사전에 몰라서 보고 싶었던 공연을 못봐서 아쉬웠다.
프린지 클래스 인원이 없어서 폐강 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군요.
부스체험 중이어서 특설무대 공연을 놓친 점 은 아쉽습니다. 방송 안내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기껏 준비한 친구들이 참여 못한 경우도 있고, 정돈 안 된 느낌 .
참여인원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었고 인기 있는 대부분의 부스는 시작하자마자 예약료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또한 행사부스 일부는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한번 둘러봤다고 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음
부스에 대한 안내도 , 배치도가 현장에 없어서 아쉬웠음. 사전에 책자를 나눠주긴 했지만 거기도 설명이 미흡했으며 어땀어땀한 부스가 있고 무엇을 하는지 간단한 설명이나 안내가 나와 있으면 참여자들이 더 쉽게 접근 했을거 같음.
생활성가 가수 공연은 젊은이의 날 행사이니 만큼 더 젊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았을 거 같음 . 수녀원 공연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귀여웠음.
급하게 준비한 티가 역력함. 동네 골목길 축제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데 구색도 못 맞췄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여러 유관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그나마 이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음
오픈스테이지 운영 제대로 공지가 안 되어 준비한 아이들이 하지 못함.
식전행사는 참여하지 못해서 3번 선택했습니다.

2. 식전행사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부스	특설무대	오픈스테이지	무응답
273명(59.2%)	82명(17.8%)	93명(20.2%)	13명(2.8%)

[대상자별 세부사항]

	부스	특설무대	오픈스테이지	무응답
사제	35명(42.7%)	12명(14.6%)	22명(26.8%)	13명(15.9%)
교리교사	97명(62.2%)	28명(17.9%)	31명(19.9%)	.
청년	62명(62.6%)	20명(20.2%)	17명(17.2%)	.
학생	45명(69.2%)	7명(10.8%)	13명(20.0%)	.
부모	34명(57.6%)	15명(25.4%)	10명(16.9%)	.

3. 식전행사 중 레드카펫(환대)은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285명(61.8%)	72명(15.6%)	102명(22.1%)	2명(0.4%)

[대상자별 세부사항]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사제	27명(32.9%)	14명(17.1%)	39명(47.6%)	2명(2.4%)
교리교사	105명(67.3%)	16명(10.3%)	35명(22.4%)	.
청년	61명(61.6%)	18명(18.2%)	20명(20.2%)	.
학생	46명(70.8%)	17명(26.2%)	2명(3.1%)	.
부모	46명(78.0%)	7명(11.9%)	6명(10.2%)	.

3-1. 3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시간 관련
좋았지만 대기가 너무 길었어요!
시간조절을 못하였다.
시간을 넉넉하게..해야될듯해요
입장시 사진 찍는 본당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 외는 신부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입장하는 경험은 너무 좋았습니다.
계획하셨던것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그랬겠지요. 처음 얼마간만 계획하셨던 대로 되고, 뒤에는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석인원수가 적어 미리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 용이했음
줄섰는데 결국 시간관계상 단체사진 못찍었습니다.ㅠ
순서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질서가 없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성당분들이 주교님께 안수를 못 받은것이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행사 진행이 늦춰짐에 따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부담스러웠음. 모든 본당이 입장하기에 시간이 많이 모자랐음.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초반에만 정식으로 하고 대부분은 대충하게 되었는데 안하는게 나을듯...) 순서도 안 정해져있고 안내해주는 사람도없고 대혼란
신부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환대와 주교님의 안수까지....넵넵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려니 기다리는 시간이 넘 길어져 다른 방법이나시간 조정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구별로 나누어서 입장시간을 주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초반 입장한 저희는 단체촬영과 하이파이브, 안수식을 모두 했지만 후반부는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촉박하게 진행된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입장전 레드카펫 단체촬영을 위해 준비다된 성당부터 올라와서 촬영하면 된다하셨는데 통제, 진행하는 분이 안계셔서 초반에 성당끼리 우왕좌왕하게 많이 아쉽습니다. 입장루트(방향)를 확실하게 표기, 공지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입장순서 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기다리기만하고 자율적으로 입장하는 바람에 시간분배와 입장이 혼잡하고 어려웠음. 다음부터 자리배치도에따라 입장 순서도 정해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함.
사진 촬영 시간에 못맞추게 되어 단체사진을 못찍어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는 신부님들, 주교님이 환영해주시니 썩스럽지만 좋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어요
레드카펫에서 단체 사진 찍으려 긴 줄을 기다렸지만 행사 시간상 중간에 찍지 못하고 들어가게됨 신부님들의 환대는 매우 매우 좋았으나 한참 기다렸는데 레드카펫 촬영 못하고 시간됐으니 입장하라 한 부분은 개선필요..
시간 지연, 조절 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침
시간 부족(순서 공지 필요)
본당별로 시간을 미리 알려줬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 (체력 다 소모됨)
시간 부족으로 많은 본당들이 환대받지 못했음이 아쉬웠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한 본당이 있어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레드카펫에서 사진 못 찍은 게 아쉬워요ㅠㅠ
시간배분. 누구는 사진 찍고 누구는 못 찍음
시간이 부족해서 사진을 못 찍은 본당이 많습니다. 참석인원이 많은 만큼 시간을 조금 더 잘 분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았다.
방법 관련 (입장 순서, 가이드 라인 및 스태프의 부재)
신부님들 환대는 좋았으나 포토존을 성전입구가 아니라 다른곳에 설치하고 입구환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음. 아울러 제대 앞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자리 찾아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을 보았음.
그 취지와 의미는 좋았으나 (환대반고 환영과 사랑받는 느낌)그 많은 인원이 비좁은 공간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느낌이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p>본당별로 사진 찍고 들어간다는 레드카펫의 느낌을 내려한 시도는 정말 좋았으나 역시 좁은 장소와 사전 안내 미흡으로 너무 복잡하고 집중 안되는 느낌이 들었고 차라리 한 본당씩 시간을 미리 정해줘서 성전 앞에서 대기하는게 아니라 다른곳에서 대기하다가 시간 순서에 따라 들어갔으면 모든 본당이 단체사진도 찍고 더 즐기면서 들어갈수 있었지 않을까 싶다.</p>
<p>입장 순서가 필요합니다. 줄이 분명치 않아 새치기가 난무해 여러 본당에서 불만을 외치는곳을 들었습니다.</p>
<p>참가본당이 많다보니 너무형식적으로 느껴졌음</p>
<p>레드카펫 자체는 좋았지만 복잡한 와중에 계속 생겨나는 새로운 대기 줄로 인해 단체로 우왕좌왕 했던게 아쉽습니다.</p>
<p>줄을서고 기다리는 과정에 안내나 도우미가 더 필요했어요</p>
<p>레드카펫은.. 일단 너무 민망했으며,, 시장통같았음 대기줄 구분이 없었음 그래서 어디가 대기줄인지 몰라 인원이 다 모인 본당이 입장을 못하고 하염없이 대기한 본당이 다수. 촬영하시는 분이 그래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셨지만 가서 직접 물어보지않으면 아마 입장 못했을거임. 대기줄 / 다음차례 입장 관리 / 순서 정리하는 사람이 다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진촬영존(?)도 본당 참여 인원에 비하면 너무 작았음 진행하시는 신부님, 촬영하시는분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p>
<p>레드카펫은 너무 좋았는데 올라가는곳에 가드라인이나 안내자가 없어서 혼잡해던게 좀 아쉬웠다.</p>
<p>들어가는 입장 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펜스나 본당 순서대로 시간을 정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습니다!</p>
<p>정확한 안내와 통제로 모든 본당이 레드카펫환대를 받을 수 있게끔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p>
<p>입장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p>
<p>좋았지만 사람이 줄이 너무 밀렸다</p>
<p>부담스럽고 혼잡</p>
<p>입장순서 미리 배정</p>
<p>장소 협소</p>
<p>모든 본당 참여 방안 강구</p>
<p>어수선하고 줄 서 있는 기준도 잘 모르겠었으며 결국 사진도 못 찍었다.</p>
<p>너무 어수선하게 진행했음</p>
<p>레드카펫 때문에 성당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결국 참여하지 못했다.</p>
<p>설명이 부족하여 주교님과의 인사 시 혼동이 있었다.</p>
<p>중간에 끊겨서</p>

<p>안수를 해주시려면 끝까지 해주시든가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대기 줄만 길고 레드카펫 하지도 못하고 엉망진창</p>
<p>뒤늦게 입장한 본당은 레드카펫 및 포토존 행사가 거의 약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천 명이 넘게 오는 만큼 지구별 입장 시간을 정해 참석인원에 맞춰 충분히 배분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p>
<p>본당별 및 지구별 순서가 있었다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p>
<p>앞에 본당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뒤에 있던 본당은 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인터뷰는 굳이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거 같습니다. 차라리 본당별 시간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면 뒤에서 마냥 기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 거 같아요.</p>
<p>기타</p>
<p>감동이었습니다. 사진 찍자마자 마음의 준비없이 얼떨결에 입장하긴 했지만, 신부님들의 눈인사와 하이파이브, 박수는 아직도 생생합니다.</p>
<p>서로 뽀뽀, 신부님 힘드심</p>
<p>레드카펫 길이가 너무 길었고, 신부님들의 환대가 다소 부담스러웠음.</p>
<p>기본적으로 신부님들이 반겨주시고 인사할 수 있어 좋았어요. 그러나 신부님들 레드카펫 서서 인사하고 힘드신거 너무 잘 압니다...근데 어떤 신부님께서 '와 이거줄라 뽀세네' 라고 말하는걸 들어버렸습니다...이 소리를 듣고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주일학교 행사시 학생들 근처에서 같은 말을 했다면...신부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p>
<p>천 명이 넘어가는 인원 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 행사는 항상 이상과 현실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행사 준비 단계에서 관련 피드백이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음.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으나 레드카펫 행사 진행 부분에서 수정이 많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 단계부터 잘 예측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을 듯함</p>
<p>신부님이 너무 많아서 좀 민망했습니다..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p>
<p>MBTI 들은 부끄러웠다</p>
<p>평소 본당에서 환대 문화 만들어 달라</p>
<p>어색함</p>
<p>사제단에 사전 공지</p>
<p>행사 중 최악</p>
<p>포토존 부스로 운영이 좋을듯</p>
<p>보이기 위한 행사로 진정성 못 느껴</p>
<p>신부님들이 힘들었을 듯</p>
<p>필요 없음</p>
<p>젊은이가 주인공인 건 좋으나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음</p>

Part B. 본행사

1. 본행사(Youth Stories)는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202명(43.8%)	119명(25.8%)	140명(30.4%)	0명(-%)

[대상자별 세부사항]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사제	9명(11.0%)	23명(28.0%)	50명(61.0%)	.
교리교사	71명(45.5%)	35명(22.4%)	50명(32.1%)	.
청년	40명(40.4%)	35명(35.4%)	24명(24.2%)	.
학생	44명(67.7%)	17명(26.2%)	4명(6.2%)	.
부모	38명(64.4%)	9명(15.3%)	12명(20.3%)	.

1-1. 1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장소 관련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해서 이해는 되지만, 좌석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지 앉아있는 시간이 힘들었음
너무 많은 사람이 공간에 모여있어서 덥고 불편하였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었다.
좋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본당별로 앉는게 좋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이 앞자리에 서있는 키 큰 어른들에게 가려서 보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ㅠㅠ 구역나눔에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멘트가 잘 안들림
장소가 넓어 집중도 떨어짐
부모파트 장소 분리되어 소외감 느낌
어수선했음
많은 인원이 대성전 안에 중고등부, 청년부 등 다른 내용의 본행사를 봐야 해서 불편
성전 맨 뒤쪽에 앉았는데, 뒤쪽에는 구중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뒷자리는 잘 안 들리고 집중이 안 됨
마이크 안 들림, 유동 인구 많아서 집중 안 됨, 외부 사람들 시끄러움, 교사들인지 자모회인지 성전에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먹임(옆에 수녀님도 가만히 계셔서 참았음)
한 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앉아서 좁고 불편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잡아주는 봉사자가 없고. 밖에 나가면 이야기하고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시간 관련
미사 전 본행사가 길다보니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사 참여자의 연령폭이 넓었기 때문에 여러 층의 연령에 맞게 준비해주시려 노력한 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중고등부와 대학생 연령 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상이 중학생들입니다. 눈 높이를 맞춰주세요. 5시간 가량 가만히 앉아 있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참여하고 감동해야 다시 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내년에는 안 옵니다.
성전에 다닥다닥 앉아서 2시간을 있는건...너무 힘들었습니다. 레크를 하기에 도 자리가 좋지 않았고, 또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부분부분 넘겨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앉아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좌석배분, 시간배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앉아서 보는 시간 대부분이었는데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내용은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성전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고 특정본당만 참석한 것이 아쉬웠다.
세시간동안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토크쇼 하는걸 지켜보는 형태의 행사가 문제가 있다
본행사시 중간 휴식시간이 좀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동안 휴식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오랜시간 앉아있었다
프로그램들이 길어서 갈수록 집중이 안됐다
프로그램 사이에 공식적인 쉬는시간 없이 진행되어 아쉬웠습니다.
미사 전 본행사가 길다보니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았지만 너무 길어져서 뒤로 갈수록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ㅠㅠ 짧고 굵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길다(지루함,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함)
쉬는 시간 이 더 필요
시간이 너무 길다(지루함)
시간적 여유, 앉는 공간의 밀집 정도가 불편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한 만큼 못 보여주신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워낙 넓어 중간라인 이후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참가자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지루했다
내용 관련
레크레이션이 성당과는 매우 무관한 강사를 초청한 것이 조금 아쉬웠음. 성당 관련된 활동으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또한 활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를 제외하면 매우 수동적 이고 결과보고 식 발표같은 것들로 채워져있다보니 자리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발생함. 청소년들의 집중도와 참여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으면 함. 또한 쉬는시간을 뒷부분 말고 중간에 적절히 넣었으면 함. 후반부로 몰려있던 쉬는시간 탓에 성전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프로그램도중 누워 자는 것이 좋은 행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 유익한 내용이었지만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습니두
집중도가 떨어지고, 참여를 할 수 없어 지루했습니다.
너무 답변을 준비한게 티가 났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않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야외행사는 준비된 프로그램에 비해 짧다 느꼈고 반대로 유스스토리즈는 길기도했거니와 교리교사 시상 이 너무 무의미하게 출러간부분 은 아쉽습니다. 매년준비하시는 행사이지만 교리교사에게는 일생에 한번뿐인 수료식 시상식 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신의 소속(청년/중고등부 등)을 구분하여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진행 하면 좋았을 것 같다.
부모님, 청년, 교리교사, 중고등부 아이들 각 역할마다 따로 공간을 만들고 시간 을 만들어, 심도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 외운듯한 대답 으로 자연스럽게 못한 토크 콘서트를 할바엔 유명인초청 토크콘서트가 나올듯 합니다 제발 토크 콘서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샘 교육때도 하셔서 설문조사때 정말 별로라고 했었는데 특별히 토크콘서트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교님 이야기를 매 프로그램마다 넣을려고 하다보니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 하였다. 오히려 사전 활동으로 진행하였던 레크레이션 후 본 행사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부분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받을 상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 하였다. (새샘,근속교사 축하받는 자리가 너무 순식간에 받아서 아이들이 교리교사에 대한 인상을 더 깊이 새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
사연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불필요 해 보였습니다
토크쇼 구경은 지루 했어요.구경꾼이 아닌 참여 할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청년/부모별 공간과 시간을 따로 하여 부스 오픈스태이지 특설부대등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면

함께 한다기 보다 그냥 보고 있는 사람 은 지겨움?
중고등학생은 겉도는 느낌이 들었고 청년들은 그냥 지켜보기만했음. 능동적인것이 더 필요한것같았음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몰아서 하는 느낌이 있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집중할 콘텐츠들이 없었다. 안에 헛소리와 상스러운 말들이 조금씩 있었다.
내용이 길어져 지루했고 공감기 어려웠다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느낌.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사람끼리 질의응답하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청중에게도 물어보고 마이크를 청중에게도 넘겨 청중의 소리도 듣고 더 티키타카가 되는 프로그램 이면 좋았을것같다.
적은 시간에 많은 프로그램이 시간쫓기듯 진행 되어 아쉽다. 또한 학생, 교사회, 대학청년을 따로 다루려다보니 행사의 포커스가 어디에도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젊은이'라는 큰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다면 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것같습니다.
재미없었고 환기 가 되지 않아 머리가 아팠다
좀 루즈함
아이들이 미리 인터뷰한 영상은 눈물나게 좋았는데 나와서 얘기나누는건 조오금 길다싶었습니다
대상의 범위가 넓어서 인지 좀 동떨어지게 느껴졌음
의미 전달도 잘 안되는 느낌과 참여가 아닌 듣기만 해야 되는 부분 이 힘들고 지루함
초반 레크레이션과 비교해서 재미가 떨어졌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맞추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정작 그 나이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 했다. 우리 아이들도 결국 본행사 진행중에 성전 밖으로 나가서 뛰어놀았다.
집중이 안됨.
코너가 너무 많았던것 같습니다(시간은 짧다보니 깊이가 부족한 느낌이고,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어른들도 집중하기 어려워요) 너무 실틈없이 진행되다보니 집중도 떨어지고 배도 고파하고 성전에서 간식먹고 떠들고 난리..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계속 들락날락...
초청 신부님도 토크쇼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들었음 신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은 인원이 운집한곳에서 토크쇼형식은 부적절 하다고 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었으면 좋았을 것
다같이 즐길 수 있을만한 요소들이 부족 했음
유퀴즈 신부님 강의 이외에 잘 들리지 않거나 공감기 되지 않거나 재미가 없었다

집중이 안되고 학생과 청년 관심 없었음(공감부족)
토크 위주라 호응도 떨어짐
중고등부와 교사에게만 치중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길
초청 신부님 내용이 젊은이의 요구에 맞지 않음
내용의 일관성 없음
강의 위주라 율동이라도
신선한 아이디어 필요
김문수 신부님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2~3시간 정도 앉아만 있다 보니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간식을 먹느라 다음 프로그램 시작된 줄도 모르고 미사 시간 겨우 맞춰서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좀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 도 같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40대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꿈을 묻는다. 청소년과 청년을 분리 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주일학교 다 같이 있으니 서로의 프로그램에 집중 못 하는 모습 이 많이 보였고 뒤쪽 자리 소리 거의 안 들렸다. 통제도 안 돼서 들락날락 어수선했다.
오픈채팅방 입장코드 전달 이 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었습니다.
약간 지루했다.
너무 유치하다.
너무 중고등부 중심 의 내용
몰입감이 없어서 행사에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문수 신부님 강의를 생각보다 짧았다. 사전에 질문을 받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중고등부의 청소년 성가제, 청년부의 참행복축제와 다르게 교리교사의 날 행사는 독보적이고 교리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 교사가 아닌 청년이지만 앞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교사들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 아쉬웠다.
레크 강의 등등이 전반적으로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으면 과연 이게 청년을 위한 자리인가 는 의문이 들었음
어린이와 청년들의 나이대가 차이 있다 보니 청년들을 위한 행사 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패널도 참여하는 시간이라 이해는 하지만 교리교사와 청년은 굳이 짜여진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었다지만 한 명 빠진다고 코너 전체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미리 되어있었다면 교리교사들도 충분히 함께 공감하고 즐길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한 번에 쭉 진행하다 보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된 거 같다

우선 레크리에이션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수준이 초등학생이나 중1 정도에나 통할 것 같은 유치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간지럽히거나 손가락으로 옆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옆 사람이 이성이라면, 아니 동성이라도 불쾌함을 느껴 성추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싶으면 초반에 했던 주교님 사진 보여주고 맞추기처럼 인물 맞추기나 성가나 가요 MR만 들고 맞추기, 가요 가사 낭독 퀴즈같이 퀴즈 중심의 프로그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인데 한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분야인 중고등부나 교리교사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 집중력에 한계가 왔던 것 같습니다. 벅스코나 신학교,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부산시민공원 같이 더 넓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식전행사(프린지 페스티벌) 및 본행사까지 자유롭게 체험 및 프로그램 참석 후 미사 직전 성전 입당 시에 환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입장 순서 계속 안내방송을 통해 공지. 먼저 입장한 본당은 밴드 및 보컬 리허설 겸 성가 연습에 참여)

기타

너무 많은 인원이 함께 듣다 보니 어수선했다

각 파트 본행사때 이야기가 잘들리지도않고 귀에잘안들어왔습니다

교리교사의 날이 교구 젊은이의 날로 통합되면서 교리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축소된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한 전달이 안되었고 학생들의 흥미를 받지 못한것 같아요

터무니 없이 길었음. 터무니 없이 시간이 긴데다, 시대를 역행하는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느라 학생들이 진이 많이 빠져함. 젊은이의 날 행사를 참여했던 사람들의 다수는 교회안에서만 느낄수 있는 기쁨, 행복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하는 풍요로움을 기대했을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레크리에이션이 기쁨이라기 보다는 재미를 추구한 느낌이였지만 재미가 없었음. 어중간한 재미를 찾으려 모인 느낌..오히려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본 행사에 자잘한것들을 즐기고 미사에 더 집중하는게

좋지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음. 아니면 그냥 그 유스스토리를 즐기고 일찍 귀가시켜주는게 더 좋았을거같다는 생각도 함. 그리고 행사 참여 연령, 소속된 단체도 너무 광범위 해서 어느 단체라도 지루했을거같음. 전반적으로 자모회 혹은 어머니,아버지교사회에서 만족도가 그나마 높았을거같음.

또 여태까지는 교리교사의날을 따로 해서, 본당내에서 새생, 근속교사를 축하해주는 기쁨의 시간을 가질수 있었던 날이었는데 젊은이의 날 행사는 교리교사 부분이어쩔수없이 많이 축소되어 아쉬웠음.

다들 돌아다녀서 집중이 안 됐다
주변이 어수선해서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집중 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의 인원이라 환기, 통풍이 잘 안 된다는 점 / 견딜 수 있는 시간에 비해 모자란 쉬는 시간과 여유 없이 이어지는 연결로 집중도가 떨어졌다.
별로다
행사 주제 불분명
참여도가 많이 낮았음
진행자, 출연자 연예인 필요

2. 본행사에서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중고등부	교리교사	대학청년부	없음	무응답
186명(40.3%)	106명(23.0%)	132명(28.6%)	12명(2.6%)	25명(5.4%)

[대상자별 세부사항]

	중고등부	교리교사	대학청년부	없음	무응답
사제	24명(29.3%)	14명(17.1%)	19명(23.1%)	·	25명(30.5%)
교리교사	65명(41.7%)	57명(36.5%)	34명(21.8%)	·	·
청년	63명(63.6%)	19명(19.2%)	17명(17.2%)	·	·
학생	48명(73.8%)	9명(13.8%)	8명(12.3%)	·	·
부모	32명(54.2%)	7명(11.9%)	8명(13.6%)	12명(20.3%)	·

3. 미사와 성시간은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384명(83.3%)	46명(10.0%)	30명(6.5%)	1명(0.2%)

[대상자별 세부사항]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사제	56명(68.3%)	15명(18.3%)	10명(12.2%)	1명(1.2%)
교리교사	137명(87.8%)	8명(5.1%)	11명(7.1%)	·
청년	85명(85.9%)	9명(9.1%)	5명(5.1%)	·
학생	52명(80.0%)	10명(15.4%)	3명(4.6%)	·
부모	54명(91.5%)	4명(6.8%)	1명(1.7%)	·

3-1. 3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성시간을 하는 것은 매우 좋았으나, 학생들도 참여하는 행사였다보니 성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안내 가 된 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사 앞에 프로그램들을 과감히 축소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미사의 찬양에 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체현시는 좋았으나 하기전에 뜻과 의미를 아이들이 알수있게 미리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분명히 초등부와 본당관계자분들은 따로 라고 했는데 유아와 함께 입장한 분들로 인해 협소한 자리에 미사 집중이 안되었다
미사는 좋았으나 성시간은 조금 아쉬웠음. 성체를 현시한다는것이 청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쳐다보고 있지 않음.
시간상의 이유로 노래로하는 기도를 짧게하여 좀 아쉬웠습니다.
새생들도 장엄하고 엄숙한 미사가 첨이라 신기하지만 좋아했어요
너무 깁니다. 대상은 십대 중반위 학생들입니다. 이미 3시간을 앉아만 있었는데 어쩔게 미사에 집중하겠습니까? 강론도 어른을 대상이 아니라 학생 대상의 강론 이길 너무 바랍니다.
좌석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다보니 성체현시에 무릎꿇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좌석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론의 임팩트가 조금 아쉬웠다. 학생들.청년들.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릴 한방이 아쉬웠다.
이런 대규모 행사가 오랜만이다보니,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이 많아서 미사가 제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울동, 성시간 너무 안 보여서 소리만 듣고 있었네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계 화면을 그 위주로 잡아줬으면 좋을듯합니다. 성가는 잘 아는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연습 안해와요..) 바오누리만 부른 것 같아요
전자초 다 켜졌을 때 감동적이었음.
평소 경험하지 못한 많은 신부님들과 주교님과 함께 한 찬양 미사가 참으로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찬율에 대한 교육 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사. 성시간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미없다
자리가 너무 협소하여 한줄에 11명씩 앉게 되었는데 다음에 한다면 조금 더 널널하게 앉고 싶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지침
영성체 후 성시간 전례적 타당성
생활성가 반주 볼륨이 너무 큼
일반신자 좌석 필요
주교님의 강론이 너무 길어 집중 못함
산만한 전례(생활성가, 율동 등)
성가와 율동을 미리 배포하여 참여도 높이기
소성전은 소외 받는 느낌
젊은이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강론, 선언 필요
청소년에게 부적합
성시간이 짧음
미사만 하자
뒷쪽 스피커에서는 밴드 분들의 악기가 타이밍이 다 안맞게 들어서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바오누리의 입당성가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미사와 성시간은 너무 좋았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초를 흔들 때 뭔가 찡했음. 다만 끝에 퇴장할 때 학부모들이 너무 떠들어서 집중되지 않음. 봉사자가 조용히 하라고 해도 3초 정도 조용해지고 다시 떠듬...
미사 때 찬양했던 성호경(떨기나무 1)은 사적 가사가 있고 주례사제와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서 원래 전례 상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RGD7DwHWSps] 링크의 이 성가를 주례사제와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제가 '성부와 ~ 성령께'라 하면 교우가 '아멘' 응답)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당성가에 축제를 성가로 왜 사용했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성가 연습 시간을 주었으면 좋았을 듯함
좁고 불편해서 미사 집중이 잘 안 됨

Part C. 기타

1. 부대 시설(식당, 식수대, 간이 화장실, 주차장)은 편리하였나요?

편리했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254명(55.1%)	154명(33.4%)	50명(10.8%)	1명(0.7%)

[대상자별 세부사항]

	편리했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사제	27명(32.9%)	35명(42.7%)	17명(20.7%)	3명(3.7%)
교리교사	98명(62.8%)	42명(26.9%)	16명(10.3%)	.
청년	55명(55.6%)	38명(38.4%)	6명(6.1%)	.
학생	41명(63.1%)	19명(29.2%)	5명(7.7%)	.
부모	33명(55.9%)	20명(33.9%)	6명(10.2%)	.

1-1. 1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전세버스 이용 본당은 주차장이 멀었음.
푸드트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없어진건가요?
하차지점에서 접수처까지 다소 거리가 길었고, 쪽문 위치 를 미리 공지했다더라면 짐 옮기기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외 식수대에 풍선을 달아놓으면 시인성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카페 현금사용만 되어 불편했습니다
역시 공간 활용의 문제인 것 같다. 뽕뽕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고 장소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판매하는 간식도 준비되어있는걸 사전에 자세히 안내해 주셨다면 행사 참여를 위해서도 점심식사를 하지않고 왔을텐데.. 빈 부스를 야외에도 마련해주셔서 멀리서 오는 본당들이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게 더 마련해주시면 행사 중간중간에 이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애인 방문객 고려한 화장실 등 고려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는데 너무 줄이 길고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없애든지 늘리든지 해주십시오.
식당 못 찾겠음, 식수대 완전 불편, 주차장도... 제일 불편 자리 하.... 할말하않
주차장 사용이 너무 힘들었음

주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생긴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불편하였습니다
남천성당에서 진행될 행사가 아닌것 같습니다. 부산지역도 주차장 필요하구요, 식당을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신학대학이 더 좋을것 같아요)
간이 화장실이 설치된것 자체는 좋았으나 간의 화장실로 인해 부스, 이동해야하는 공간들이 너무 좁아서 힘들었음.
너무 많은 인원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 힘들었다
주차문제
남자화장실 이 몇개 없어서 불편했다
식수대 매우 좋았으나 푸드코트 사람 너무 많고 규모는 작아서 이용못함 주차 4시부터 각 본당별 한대씩 가능하다해서 4시30분경갔으나 행사차량 안빠져서 안된다함 5시반 갔으나 안됨. 미사 끝나고 갔으나 역시 안된다함
냄새가 너무 ㄷㄷ
주차장 확대 필요, 식당에 자리가 없었다
전체적인 장소 협소 , 휴식 공간 부족, 부대시설 부족, 먹거리 즐길거리 부족
장소 안내 가 없어 찾기 힘들
주차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림
남천성당은 행사 장소로 부적합
승하차 안내 가 부족
화장실 부족
식수대 부족
운수가 필요함
식수 버튼 누르기 힘들
주차 힘들
2000명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장소가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을 타 지역 뿐만 아니라 관내 본당에 대해서도 확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참여자에 비해서 너무 좁고 부족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치고는 화장실 문제(휴지/막힘/더러움)는 없었다고 생각
식사 문제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한다면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락 등 식사를 지참해서 오라고 하는 것 외에도 도시락을 못 챙겨온 사람을 위해 간단한 식사 거리라도 판매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도 행사를 한다면 해운대 벅스코 같은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2.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주차장	식수대	간이 화장실	식당	무응답
186명(40.3%)	108명(23.4%)	84명(18.2%)	71명(15.4%)	12명(2.6%)

[대상자별 세부사항]

	주차장	식수대	간이 화장실	식당	무응답
사제	36명(43.9%)	13명(15.9%)	8명(9.7%)	13명(15.9%)	12명(14.6%)
교리교사	65명(41.7%)	42명(26.9%)	26명(16.7%)	23명(14.7%)	.
청년	44명(44.4%)	27명(27.3%)	14명(14.1%)	14명(14.1%)	.
학생	9명(13.8%)	15명(23.1%)	30명(46.2%)	11명(16.9%)	.
부모	32명(54.2%)	11명(18.6%)	6명(10.2%)	10명(16.9%)	.

3. 행사 전반적으로 보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내용	
사제	
장소협소 11	대상을 나눠서 따로 행사 필요 7
행사를 간략하게 하자.(짧고 굵게) 9	선택과 집중 필요 6
내실 있는 프로그램 필요 3	욕심이 과하고 대상이 없고 체계가 없다. 4
휴식 공간 부족 3	소통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가 나오길. 2
성전에 장시간 있기 힘들었다 3	단순히 모이기 목적으로 끝남 2
장소를 신학교로 2	청소년 활동성 고려 2
투자 필요 2	시간표가 한눈에 파악 안됨
동적 프로그램 필요 2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공감대 역부족
많은 인원 에 대한 배려 필요 2	전반적인 홍보 부족
본당 밖 젊은이 에 대한 배려 부족	행사가 전반적으로 너무 길어 집중하지 못함
찬양미사와 공연 경비하자.	행사 축하인사 신자연예인 영상
프로그램 사이 텀이 길다	전반적인 안내가 늦어 본당에서 혼선
공연이 많이 해달라	실속 없는 껍데기 행사
주차장 부족	행사 주체자가 아니라 참가자가 만족해야.
기도 시간 부족	신앙체험 나눔(지구나눔 후 본대회 감동나눔)
미사와 성시간 중심으로 진행	장소 변경과 규모확장, 사제의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들의 소외	성소주일 행사 같았음
경품추천	시간 준수, 오픈채팅관리

교리교사(가장 많았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
사전 홍보 및 공지가 부족하고 너무 늦게 나가서 인솔자들이 행사 숙지를 하지 못함.
수용 인원 에 비하여 장소 협소 (부스 부족, 부스 간의 간격 협소, 성당 좌석의 밀집도)
부스 체험하는 시간은 부족했던 반면, 본행사(Youth Stories)는 너무 길었다. (불편한 좌석에서 많은 인원이 오래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지침, 중간 이탈이 잦음.)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부스가 많이 없었고, 인기 있는 곳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
시간 관계상 특설 무대와 퍼스널 컬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제기)
레드카펫 입장 시 입장 순서상의 혼란 (새치기 난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른 피로도 상승, 가이드라인 및 스태프의 부재, 시간 부족에 따라 급하게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본행사 시 각 그룹별로 장소 및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하면 좋겠다 는 의견이 상당함. (본인이 속한 그룹의 내용이 아니면 집중도가 떨어짐, 모든 코너를 다 봐야하는 것에 따라 시간이 늘어지며 지친다는 의견,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상황 속출)
본행사가 참가자와의 소통 형식 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토크 콘서트 그만)
화면이 작고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 3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관람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미사와 성시간은 좋았다. (주교님 강론은 아이들이 듣기에 어려웠다.)
노래와 율동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던 부산 내 본당들의 항의.
청년
본행사 유스스토리 [청산유수] 코너!!! 열심히 준비해주셨고 진행도 매끄럽고 좋았는데, 쉬는 시간 뒤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고 정리해 주는 안내요원의 부재 로, 뒤쪽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잡담 소리에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ㅠㅠ
사전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 모두 수용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리가 너무 불편했다
식당 등 활성화, 대성전에 있는 동안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주일학교 청년 분리 했으면 좋겠다. 사람만 많고 이도 저도 안 되는 거 같다.
특설무대? 그 마이크랑 악기 음량이 너무 작아서 거의 안 들린 게 아쉬웠어요
보다 넓은 공간 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확보하고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청소년과 분리 하고, 청년도 20대와 30대의 공감대가 다른 만큼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중고등학생부터 30대 중반 청년들까지 다 같이 재밌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틀에 걸쳐 나눠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부스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좁고 정신없고 결정적으로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 휴식 공간·활동 공간 다 합쳐도 그 인원이 움직이기에 남천은 좁다.
성전 음향 관리 및 시간분배 조절 필요

부스 진행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산유수 등 성전 안에서 진행했던 행사들이 뒤쪽 자리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쉬웠 습니다
행사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음 . 청년 교사 주 일 학교를 구분하여 진행 하고 각각 원하는 니즈를 지금보다 더 고민해서 행사를 기획해주시 기를 바람. 청년들이 다른 놀거리 즐길 거리를 포기하고 참여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를 바람
<p>1. 홍보 부족 홍보에 비해 사람이 많이 참여했다고 생각함. 이번에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첫 비대면 대형행사여서 그렇다고 생각함. 각 부스들도 영상이나 주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듯</p> <p>2. 봉사 인원의 부족 부스 운영 및 전체 총괄 시에 청소년사목국 직원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셨던 거 같다. 봉사자를 당연직으로 총원하든 업체를 꺼서 외부에서 총원했었으면 좋았을 듯</p> <p>3. 협소한 장소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2,500명을 채우기에 남천성당은 너무 협소했다. 협소한 장소 때문에 주차도 제한, 부스도 제한되었을 텐데 신학교나 시민공원 등 으로 옮기면 어떨까</p> <p>4. 다인원 밀집 장소 관련 예절교육 중고등부 성전에서의 기본 예절교육 시간을 지키는 교육</p>
지루하고 재미없고 길고 장황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 유치했습니다. 초등학생 눈높이라 30대인 저와 사춘기 온 중고등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남천성당 카페가 비쌌 습니다.
중고등부 / 청년의 분리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행사장소가 조금 더 넓고 주차 공간이 충분했으면 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뿐만 아니 라 어린이들(초등)도 참여 하는 행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더 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본 성당에서 같이 미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간단한 음료를 사먹을 공간이 부족 합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이의 날인데 너무 교리교사 및 학생에게만 집중되는 행 사였던 거 같았습니다.
주차장 확대
행사 전반적인 초점이 중고등부, 교리교사에 맞춰져 있어서 청년부가 함께하는 느낌 이 적었 습니다. 미사와 성시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본 프로그램 행사 시 지루 하였음, 레크시간이 조금 더 필요함, 미사 전 성가 연습 필요

뒤늦게 입장한 본당은 레드카펫 및 포토존 행사가 거의 약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천 명이 넘게 오는 만큼 지구별 입장 시간을 정해 **참석인원에 맞춰 충분히 배분**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수준이 초등학생이나 중1 정도에나 통할 것 같은 유치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간지럽히거나 손가락으로 옆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옆 사람이 이성이라면, 아니 동성이라도 불쾌함을 느껴 성추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싶으면 초반에 했던 주교님 사진 보여주고 맞추기처럼 인물 맞추기나 성가나 가요 MR만 듣고 맞추기, 가요 가사 낭독 퀴즈 같이 퀴즈 중심의 프로그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인데 한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분야인 중고등부나 교리교사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 집중력에 한계가 왔던 것 같습니다. 벅스코나 신학교,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부산시민공원 같이 더 넓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식전행사(프린지 페스티벌) 및 본행사까지 자유롭게 체험 및 프로그램 참석 후 미사 직전 성전 입당 시에 환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입장 순서 계속 안내방송을 통해 공지. 먼저 입장한 본당은 밴드 및 보컬 리허설 겸 성가 연습에 참여)

본행사의 진행이 느려 지루한 감이 있다

신청받을 때 중고등부 이하의 연령대는 참가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본당에서 **초등부들을 단체로 데리고 와서 성전에 앉히는 바람에 자리가 모자라** 뒤에 있는 몇몇 신자들은 서서 봐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든 확인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먹을 것**을 들고 들어와서 먹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본당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제지가 안 된다면 **행사 스태프**에서라도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체 후 기도 시간에 성전 입구에서 학생들이나 본당 신자들을 데리러 오신 분들이 소란스럽게 해서 분심이 들 뻔했습니다. 스태프들은 많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를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식사 시간과 행사 시간이 겹쳐서 식전행사들을 제대로 못 보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이 시간들이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간 문제가 가장 시급**해 보였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행사를 하여서 좋았습니다.

1. 부스체험- 인원은 2,500명이 모였으나 부스는 한계가 있고 모을 수 있는 인원 한계가 있다. 그리고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하는지조차도 몰랐고 **홍보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2. 젊은이의 축제에 중고등부, 청년부, 부모님, 교사들까지 너무 폭넓게 되어있다 보니 거기에 프로그램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을 듯하다. **차라리 모이는 인원을 제한하던지 프로그램을 좀더 폭넓게 하는 것도 중요한듯하다.**

3. 오랜 시간 동안 성당에 있으면서 전혀 먹거리를 사 먹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4. 성전에 들어가기 전 본당별로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차라리 **순서를 정해 주던지** (앉을 자리도 없었고) 한참을 밖에 있어서 힘들었다.

5.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었으나 실제로 느끼는 부분은 고생했던 것만큼 만족을 느끼진 못했던 것 같다. 행사에 대한 **홍보가 잘된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함에도 장소는 너무 협소**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다

학생	
시작시간 같이하면 좋겠다	
미사는 너무좋았습니다 각 파트별 준비는 수고 많으셨는데 시간이 길어 전달력이 조금 약했던것 같습니다. 조금 느슨한듯 지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청년밥상신부님과 시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강의내용이 썩썩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수녀님들의?공연은 너무 좋았습니다	
부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었다	
전체적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아쉬웠으나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좋은 행사였습니다. 더 큰 곳에서 한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사와 성시간이 수많은 신부님, 젊은이들이 함께하여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돌아왔으면 좋겠음	
다음번엔 신학교 같이 자리가 큰 곳에서 하면 좋겠다	
부스시간을 늘려 다양한 체험하고싶다	
미사시간이 너무 길었어요ㅠ	
부모	
참여 대상 범위가 넓다.	본행사와 이어진 미사 지루함
교사의 날 행사가 없어서 아쉽다	부스가 참신하지 않음
식전행사와 본행사의 연결 매끄럽게.	스테이지 더 활기 있게 진행
부모교육 내용 좋으나 장소, 홍보 고민	5시에는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길
간식 퀄리티 올려달라	행사 시간이 길어 지겨움
장소 협소 3	일부 초등학생이 보임. 규칙에 대해 확실하길.
움직이는 프로그램 필요	부모교육 못한 것 아쉬움
부모의 참여로 너무 복잡	주정차 통제 부족
대상이 너무 포괄적임	홍보 부족
본당 밖 젊은이 배려분위기 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필요
부스시간 부족	별로 볼게 없고 지루함
프로그램을 줄이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찬양시간이 없어서 아쉬움
스크린이 작음, 소란 집중 못함	어수선�함
부스 시간 늘어달라	

<대상자별 질문>

교리교사 Part

1. 본행사 교리교사 프로그램(교리교사로서의 길 ‘과거-현재-미래’)은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84명(53.8%)	57명(36.5%)	15명(9.6%)

1-1. 1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교리교사 프로그램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상만 기억납니다.
식이 길다보니 관심있는 부분에서도 흥미가 떨어졌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
앞아서 진행을 쳐다보는 형식이 문제다.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너무 짧았고 정신없이 진행된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교리교사의날의 기쁨보다는 행사 중 코너속의 코너 같았음. 시간이 없어 급박하게 넘어갔으며 교리교사가 아닌분들은 이게 뭔가 싶었을거같기도 함.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과 다니지 않은 신앙인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교리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게 되지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상이 다른 것들에 밀려버린 느낌
앞서 말한것 처럼 교리교사에 대한 소개라던지 시상부분에서 아이들에게 교리교사가 무엇인지, 앞으로 교리교사가 될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서 아쉽다.
영상의 음향(목소리)이 다소 적었습니다. 영상 후 실제로 제대 앞에서 간단히 말씀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뚜렷한 기억이..새샘등 시상때 자유로웠던 기억만이 있습니다.
성당이라는 구조상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 지구별로는 물론 다른 본당 선생님들끼리 교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후다닥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없어 흐지부지 지나간 느낌.. 아쉬워요ㅠ
잘기억이 안나요 아이들이 노래불러주던영상은 생각나요

2.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84명(53.8%)	41명(26.3%)	31명(19.9%)

2-1. 2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재미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즐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오픈스테이지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못했어요
시간을 넉넉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스널컬러를 하러 제일 먼저 갔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준비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ㅠㅠ
토크콘서트때 주의가 산만했다
중등부아이들은 내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참여를 못했고 아니면 재미없다고 합니다
부스참여는 재미있어했으나 정작 본행사는 지루 해했습니다. 미사와 성시간은 좋았으나 본행사때 너무 늘어져서 지친상태 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부스 활동이나 컨텐츠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레크리에이션 이후로 상당히 지루해 하였다.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많지 않다보니 아쉬워했다.
부스 체험은 모두 즐겁게 참여했지만 유스스토리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서 조금은 지루해하기도 했다. 레크리에이션을 제일 즐겁게 했다
행사의 내용은 유익했으나, 대면행사의 장점은 ' 쌍방향 '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듣고/보고만 있어야하는 시간들이 계속되니 지겨워해서 아쉬웠습니다.
만족도는 좋았으며, 다만 시간이 길어지며 일부 지친 모습 을 보였습니다. 분위기 반전하는 세미 프로그램 들어가도 좋을듯합니다^^
내년에는 안옵니다. 저희 본당뿐 아니라 인근본당 아이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교구행사를 오랜만에 하고, 학생들 끼리도 다른 본당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고 합니다. 다만 Youth Story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 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재미없고 긴시간동안 앉아있는것 이 너무 힘들었다는 반응입니다.
성전에서 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루했다

시간에 비해 즐길거리가 많이 부족했고, 아이들이 특설무대에 집중되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것 같았습니다.
지겹고 재미없고 내년에는 절대 안올거래요
너무 같은 패턴. 지루해 함. 뒤에서 핸드폰만 만지작 거림.
다들 안 보고 있어서 반응이라할것도..
유스스토리 할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음. 해당 코너에 지정된 시간은 너무 긴데, 아이들에게 오는 흥미 요소는 적고, 오히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수있는 프로그램 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본 행사의 템포가 너~무 늘어서고 유사 행사를 참고하지 않은 티가 역력히 나 대다수가 지루해 했음. 아이들은 아이돌, 게임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세대라 이런 행사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더 냉정한 평가와 반응을 보일 것 이라고 생각.
후반에는 다들 나가고 자리에 없었다
토크콘서트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지겨워했음
프로그램 진행시 지루해했고 특설무대는 짧아 아쉬웠다
너무 재밌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예비중들 아이들은 너무 길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면이 있었어요 특히 신부님들의 환대와 미사는 너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신부님들이 그렇게 멋지신지 또 느꼈다고 합니다
행사 중간마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주셨으면 학생들도 덜 피로해하고 행사 집중도도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었고, 앞에 진행자들만 진행하다보니 강의 듣는 느낌을 받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부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스들이 조기마감을 하는 바람에 먼저 흥미가 떨어졌다. 그래도 여러 주제의 부스가 있었기에 금방 잘 돌아다녔으나, 본행사에서는 1-1번과 동일한 이유로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하지 못했다.

3. 기존의 매년 진행되었던 교리교사의 날을 교구 젊은이의 날로 통합하여 진행한 형식은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별도 진행)
102명(65.4%)	22명(14.1%)	32명(20.5%)

3-1. 3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미사는 좋으나 근속상 시상시 축하 받는자리가 너무 날랜으로 지나갔고 교리교사 축하가 너무 약했다
교리교사의날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
통합하는 자리는 좋았던 부분이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칭찬받고 아이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은 앞으로 아이들도 교리교사를 꿈꾸게 하는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단 모든계층에게 시간이나 비중을 비슷하게 할애하려하다보니 오히려 행사가 비대해 졌다고 생각하며 특정해에는 특정계층에게 행사 비중의 절반정도를 집중하는 형태로 순환하는건 어떨까합니다.
함께 축하할 일이지만 교리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루하거나 관심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 같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교사 별도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지겨워하였음
좋았지만 교리교사의 날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교사의 날을 교리교사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 자모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분간은 동시에 진행하면 상호작용이나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챙겨야하는 입장이다보니 정작 행사 참여에는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새샘, 근속교사 시상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었던거 같음
교리교사에 대한 집중으로 다른 청년들은 소외감이 들것같고 들러리라는 느낌이 들것같다.
각자가 공감하지 못한 상황이면 집중할 수 없다. 주일학교의 날(교사+아이들) 과 청년의 날이 엄연히 분리되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연령대의, 다른 관심사와 역할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별도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간에 밀려 교리교사는 너무 후딱 지나간 느낌. 교리교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같은것도 넣었으면 좋았을것같다. 교리교사의 날인데 교리교사가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하니 교리교사의 날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교리교서의 날은 교리교사들의 것으로 남기면 좋을것 같다.
교리교사를 위한 시간이 형식적으로 끼워져있는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샘 수료하신 선생님께 쯤 죄송했어요 ..ㅠ

<p>청소년 행사의 주제는 하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교리교사와 젊은이는 특성이 너무 상이합니다. 교리교사는 젊은이와 중장년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행사에 교리교사 이야기만 빼도 연결점이 생기지만, 교리교사가 이 행사 내용에 들어가니 학생들에게 교리교사를 이해하라는 이야기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교리교사의 노고를, 기쁨을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기존의 교리교사의 날로 따로 빼서 운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젊은이(Youth; 청소년~청년)에 포함되는 교사도 있겠지만 아닌 교사도 많습니다. 이 특성을 모두 하나로 하다보니 본행사가 길고 늘어진 것이 아닐까 싶네요.</p>
<p>너무 식이 너무 길어 지참</p>
<p>교리교사의 날의 별도 진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행사가 필요하다.</p>
<p>교리교사를 위한 날이라는 느낌보다는 큰 행사에 일부가 된 느낌이었고, 시간에 쫓겨 축하하고 함께 즐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p>
<p>사람만 많고 숨막혔어요.. 다음에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모회를 제외하든지, 중고등부를 제외하든지... 사람만 많고 힘들었어요.</p>
<p>교리교사의날은 별도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해서 한것은 안하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쁠 정도) 근속교사, 새샘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교사의노래라도 한번 불렀었으면...</p>
<p>교리교사의 날이 별도로 진행되면 좋겠어요</p>
<p>통합 진행행은 괜찮았습니다만 행사 내용구분이 좀 더 선명했으면 합니다</p>
<p>교리교사의 날을 경험해본 교사들은 아쉬웠을 것이고 소속 단체가 교사회가 아닌 참여자들은 어리둥절 했을거같음.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p>
<p>본당 어린이 미사가 있을때는 별도 진행된 교리교사의 날 행사에는 참석을 거의 못했는데 젊은이의 날로 통합되어 본당 학생미사를 없애고 아이들과 참석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p>
<p>교리교사의 날도 별도로 진행해주세요!!</p>
<p>행사 자체가 딜레이되서 약소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전술했던 바가 맞다면 차라리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임. 대상자 선생님들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음</p>
<p>이도저도아닌것처럼되서 아쉬웠다</p>
<p>교리교사 시상을 미사시간속으로 넣어서 했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p>
<p>같이 해서 좋은부분들도 있었으나 교사들은 아이들을 챙겨야하고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할수가없었음.</p>
<p>통합된 행사이다보니 교리교사와 청년부의 내용 주제에 접합이 없어 공감기 어려웠다.</p>

통합된 행사를 하되 본 행사에서 서로 나누어 각자 공감되는 내용을 진행하고 다같이 미사를 보는 방식이 좋을 거 같다.

교구와 지구의 10월 11월 행사가 너무 많아 주일에 매번 행사가 있어 힘들었습니다. 교리교사의 날도

지구 따로 교구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가 나은 듯 합니다. 교리교사가 아닌 분들까지 있다 보니 중점이 흐뜨려진 느낌 때문입니다.

교리교사의 날 별도 진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본행사 Youth Stories(청산유수 코너)는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51명(51.5%)	33명(33.3%)	15명(15.2%)

1-1. 1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밖에 있느라 못 들었습니다ㅠㅠ
잘 안 들렸다.
뒤에서 들으니 잘 안 들렸어요. 음향 조정과 부가적인 자료(피피티, 자막 등)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장시간의 코너는 집중도와 참여율을 떨어뜨립니다. 짧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유치함
청년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집중이 안 된다. 그와 별개로 내용도 집중이 안 되었다. 결정적으로 재미 감동 어느 것도 없었다.
중간라인 뒤쪽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시간 부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만들고 편집하여 송출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안 들려요
진행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연기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하지만 보이스로만 이해하기엔 성전이 많이 소란스러웠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동원해주었으면 조금 더 집중이 쉬웠을 것 같다.
전문적으로 진행을 사람들이 아니라서 흥미가 부족했고 보기에 부담스러웠음
화면으로 띄워줘서 멀리서도 잘 보여서 좋았으나 자막도 띄워줬으면 좋겠음. 마이크가 너무 안들림
재미없었습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고, 잡담을 나누다 보니 뒷자리에 앉았던 저희에게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B의 1-1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만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면 더 집중도나 참여도가 높았을 것 같네요.

2.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53명(53.5%)	34명(34.3%)	12명(12.1%)

2-1. 2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너무 흔한 주제, 답변
잘 안들리니 집중도가 하락함
굉장히 지루했음
유치함
전체적인 내용이 중고등부와 청년 그 이상 어른들의 내용이니 청년들을 위한 내용은 딱히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럴 거면 청년하고 중고등부 따로 하는데 맞다 다음부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행사였다
많은 인원이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어수선했습니다.
반응이 다들 좋지 않았습니다.
미사 전 행사가 너무 길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부스 참여부터 본행사까지의 텀이 너무 길었다.
청년만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음. 다 같이 모이다 보니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만했음. 막상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때는 흥미가 없어 별 관심이 없고 전문적이지 않아 보기에 불편했음
대부분이 중고등부/교리교사가 떠들어서 집중 못 했다고 들음.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내놓거나, 아예 날짜를 다르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

3. 내년에 이와 같은 행사를 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한다	불참한다
83명(83.8%)	16명(16.2%)

3-1. 3번 문항의 3번(불참한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생활이 더 바빠질 예정이라
너무 흔한 주제와 답변. 미사는 너무 좋았음

활동보다는 너무 강론 위주 라서 지겨웠음
사람만 너무 많았다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앞 행사와 본행사 종료 후 미사는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받아 누군가는 편한 자리 누군가는 불편한 자리에 앉으며 가해자 없는 차별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인원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음.
청년을 위한 내용 부재 , 자리 배치 시 청년들은 중고등부는 어려서 양보, 선생님들은 어른이라서 양보 결국 불편한 의자에서 몇 시간을 앉아있었다.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불편했고 재미없었다 냉정하게 말해서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 다 덩고 불편한 거 그렇다고 쳐도 내용이 정말 별로였다
총프로그램의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중고등부/교리교사/청년이 모두 모이는 행사라는 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큰 행사라 기대가 컸다. 물론 함께 모인다는 자체가 의미있고 좋았다. 모두를 챙겨 주시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음. 모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였음. 청년 교사 주일학교가 다 모여 진행하다 보니 집중력이 저하되고 공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음. 모든 주체를 만족시키려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사람만 많이 모인 허울만 좋은 행사 처럼 느껴졌음
청년의 얘기를 듣는 게 그것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고작 사연을 뽑는 게 참여인 게 아쉬웠습니다.

학생 Part

1. 본행사 Youth Stories(궁금한 이야기 Youth)는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40명(61.5%)	23명(35.4%)	2명(3.1%)

1-1. 1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만 말하는 느낌을 받음
공감대가 없었다.

2. 행사에 참여한 중고등부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45명(69.2%)	19명(29.2%)	1명(1.5%)

2-1. 2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이유

내용
재미가 없다고 했다.

3. 꿈이라는 프로그램 주제가 중고등부 여러분에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못하다.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33명(50.8%)	16명(24.6%)	14명(21.5%)	2명(3.1%)	0명(0%)

3-1.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용
꿈이라는 주제가 청소년과는 관련이 많을지 몰라도 종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꿈에 도움이 되지도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패널들의 진행 능력 부족

4. 꿈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나요?

매우 관심이 갔다	관심이 갔다	보통이다	관심이 가지 않았다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33명(50.8%)	16명(24.6%)	14명(21.5%)	2명(3.1%)	0명(0%)

4-1. 관심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용
이미 꿈이 정해져 있었다 보니 다른사람이 왜 그 꿈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는 좋았지만 주제를 잘 다루지 못한 것 같음
그냥 끌리지 않음

5. 다음에 이와 같은 자리가 있다면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내용		
행복	지구 환경	청소년들의 고민
꿈	믿음	인간관계
친구들	내면의 나	주일학교 이야기
꿈에대해서 이야기하고싶다	신앙	성당 유래
진로	진실	음식
어른	가족	직업에 대한 프로젝트
나의 롤모델	성당에 다니는 이유	성소
여행	연애	예수님
미래	존중	스포츠

6. 다음에 이와 같은 자리가 있다면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내용
물론 체험부스도 좋았지만 다른 같이 참여할수있는거였으면 좋겠네요
부스체험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레크는 의미가없다
각 해당 팀별로 모아 하던지.. 굵고 간결하게 하던지 시간에 비해 내용이 조금 전달이 덜되었습니다.
다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당마다 한곡씩 노래 불러서 가장 잘 부른 성당 뽑는게 재밌을꺼 같다
재밌고 자유로운 활동
장소를 조금 더 큰 곳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간격을 지키고 그랬을 때 인원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을 섭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방식은 정말 좋았습니다
중고등부 토크 형식도 재미있었습니다. 상품같은걸 준다면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퀴즈쇼
부스를 더 많이 만들고 성전 안에서 '모든'친구들이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음
레크레이션
게릴라 토크&가톨릭 부산 채널을 활용한 재미있는 콘텐츠 젊은이의 날 진행중에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처럼 인터뷰를 해도 괜찮아 보인다.
사람이 더 여러곳으로 분산 될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신나는 레크레이션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제에 맞게 준비하기..?
조별 활동
영상
부스체험
인터뷰
성소에 대한 인식
썰 풀기

부모 Part

1. 본행사에서 부모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만약 부모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어떤 주제면 좋았을까요?

부모와 자녀	부부	자녀신앙	부모신앙	기타
30명(50.8%)	3명(5.1%)	14명(23.7%)	10명(16.9%)	2명(3.4%)

1-1. 1번 문항의 5번(기타) 선택 시 내용

내용	
모범적인 인물 섭외	부모와 자녀의 소통
'나'에 대한	자녀 신앙 고민 상담
신앙을 포함한 힐링 시간	자녀의 교리와 미사 참석 고민
부모와 자녀 입장 바꾸어 보기	부모신앙 자녀에게 보여주기

2. 부모님들은 장소가 소성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다.	보통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20명(33.9%)	27명(45.8%)	12명(20.3%)

2-1. 2번 문항의 3번(수정이 필요하다) 선택 시 내용

내용	
아쉽지만 괜찮음	미사와 성시간을 느끼기 힘들
오히려 집중이 잘됨 2	행사에 대해 소외감 느낌 3
함께 하게 해달라 3	아쉬움
뒤쪽에 소리 전달 안됨	자리가 좁음
미사만이라도 같이 했으면	잘 안보임

<별첨 자료>

부스 운영팀 (26명 응답)

Part A. 준비 과정

1. 부스 준비를 위한 시간(기간)은 어떠셨나요?

적절했다.	보통이다.	부족했다.
22명(84.6%)	3명(11.5%)	1명(3.8%)

2. 부스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 금액은 어떠셨나요?

적절했다.	보통이다.	부족했다.
21명(80.8%)	3명(11.5%)	2명(7.7%)

3. 부스 준비를 위한 사목국과의 소통 방식은 어떠셨나요?

적절했다.	보통이다.	부족했다.
18명(69.2%)	7명(26.9%)	1명(3.8%)

4. 부스 준비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내용
시설 관련
홍보국에서 많이 도움을 주어서 부스 준비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아 테이블에 깔 하얀 천 또는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는데 바람의 방해가 심해서 곤란했습니다 티비 설치도 늦은데다가 리모콘이 없어서 거의 사용 못했고 핀마이크는 충전이 안되어서 사용중 계속 방전되었습니다
시설관련 보강이 필요하네요

<p>지급해주신 의자가 부스공간을 많이 차지하는것같아서 작은 등받이 없는 의자였으면 좋겠습니다.</p>
<p>장소 관련</p>
<p>장소가 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참여 인원에 비해서 협소했다</p>
<p>부스별 간격이 좁은 상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왔을때는 비좁아 보인상태. 장소가 좀 넓었으면 부스를 체험기회가 많았을 것 같다</p>
<p>참가인원에 비해 공간이 적은 편이었음</p>
<p>근처 주차시설이 부족했고 부스 크기나 종류는 배치나 크기가 좀더 넓었으면 합니다</p>
<p>소통 관련</p>
<p>전반적인 행사 일정, 방식 등 관련부서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궁금하여 역으로 물어본게 많아요.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p>
<p>적극적인 소통과 빠른 답변으로 불편함이 없었고, 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고민해보면 좋을 듯합니다.</p>
<p>단체카톡이다보니 공유하기 쉽고 좋았습니다</p>
<p>여러번의 사전 회의를 통해 부스 준비는 적절했습니다. 예를들면 모니터등 필요한것을 준비해줄수있는지 문의에대해 확답을계속못받아서.어떻게든 준비해주시려고 한 마음은알겠지만 불확실한것에대해 미리 해줄수없다고 확답만해주시면될듯합니다.</p>
<p>어떤식으로 부스가 준비되는가에 대해 추상적이라서 미리 구상하기 어려움.</p>
<p>여러차례 회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과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봉사자들이 적은 상황에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고생많으셨습니다.</p>
<p>기타</p>
<p>프리마켓 부스가 있었으면 더 다채로웠을듯 합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리마켓 형식을 도입했으면 좋았을거 같습니다.</p>
<p>내년에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p>
<p>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입식 현수막도 감사합니다.</p>
<p>저희는 기후위기 피켓팅을 부스활동으로 하었는데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이 피켓팅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사전에 부스를 소개하는 설명이 BYD 책자에 실렸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p>

Part B. 본행사

1. 부스 진행 시간은 어떠셨나요?

적절했다.	보통이다.	부족했다.
15명(57.7%)	7명(26.9%)	4명(15.4%)

2. 부스 진행 시 시설 사항(텐트, 음향)은 어떠셨나요?

적절했다.	보통이다.	부족했다.
13명(50%)	8명(30.8%)	5명(19.2%)

3. 부스 진행 시 계획 사항의 실행 정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계획된 대로 거의 진행	보통이다.	계획과 다르게 변수가 많았다.
18명(69.2%)	4명(15.4%)	4명(15.4%)

3-1. 3번 문항의 3번(계획과 다르게 변수가 많았다) 선택 시 내용

내용
<p>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때는 퍼즐을 먼저 하지 않고 프라도여성재속회 설명을 하고 말씀초콜렛 뽑고 책갈피만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황보고 움직인거라서 나쁜거라고 생각안합니다</p> <p>이건 저희 내부 상황이라고 생각한답니다~~</p>
<p>많은 인원이 지속적으로 밀려들어 진행이 힘들었어요~</p> <p>1인당 15분씩 10명 진단 계획했고, 그렇게 진행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부스 운영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오셔서 현장 예약 마감이 10분만에 되는 바람에 나중에 헛걸음하신 분이 많다는 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어요. 10명 밖에 진단을 못하고 빨리 온 특정본당들만 몰빵되어 여러 본당이 참여하지 못한게 아쉽고 미안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분들을 보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날 저의 체력적 한계 때문에 두시간이 적절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을 받기 위해 1인당 시간을 더 줄이자니 설명이 충분치않고, 컨설턴트를 한명 더 구하자니 저와 진단 시스템이 달라 충돌이 있을거 같더군요. 혹시라도 추후에 지구, 교구회의에서 이러한 의견 나오면 잘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부스에서 하는 활동의 이해도가 낮아서, 예를 들면 수도자들이 기후위기를 알리는 앞치마를 착용했는데 앞치마를 판매하기를 원한다는지, 앞치마를 입고 사진찍기를 원하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기후위기를 알리는데 있는데, 피켓팅이 뭔지 몰라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분들이 다수 있었다.

4. 부스 진행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내용
시설 관련
모든 부스에 전력 사용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스가천막천이어서 벽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의사가 팔걸이 의자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부스가 좀더 안정적으로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저희자리가 코너여서였는지 바람의 영향으로 흔들렸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부스진행과 공연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다보니 부스와 공연을 선택해야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부스운영하는 장소에 음악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부스 진행과 공연을 같은 시간에 하다보니 부스 진행자들이 공연을 볼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각 부스활동 봉사자 끼리 먼저 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것같습니다. 저도 홍보를 많이했지만 사전에 더많은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시간, 장소, 인원 관련
시간이 더 여유롭게 주어졌으면
장소가 2,500명이 함께 하기에는 작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넓은 장소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단체카톡이다보니 공유하기 쉽고 좋았습니다
부스도 좀 작은편이었고 장소도 협소하여 활동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주위의 장소를 활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한다. 시간이 너무 많으면 지루하지만 딱 30분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부스별 많이 올것 같은 것은 한곳에 모아두기 보다 분산 시켜 놓았으면 좋았겠다
공간이 넓지 않아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p>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참석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서, 참가인원의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p>
<p>저희 부스를 위해 일부러 실내로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도 바깥 소음이 많이 들려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최선의 장소였던거 같습니다.</p>
<p>부스가 공간과 시간에 비해 너무 많았으며 부스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다음에는 이점을 고려하였으면 좋겠다.</p>
<p>기타</p>
<p>부스 진행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본당에 행사 부스의 사전 홍보도 필요해다 생각합니다.</p>
<p>진행은 각자위치에서 하기 바빠서 전체적인 진행은 볼수가 없었어요</p>
<p>부스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안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둘러보다가 시간이 다 가고 시간 자체도 적게 편성되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p>

5. 행사 전반적으로 보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p>내용</p>
<p>부스 운영자들도 다른 부스를 방문하여 장. 단점 및 타 기관 홍보를 볼 수 있도록 행사 전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p>
<p>봉사자 선정시 청년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봉사자들의 연세가 있다보니 청년 행사의 도우미로서의 역할과 명령, 지시하는 모습에서 약간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었다.</p>
<p>아쉬운것이 있다면, 부스가 생각보다 행사참여 인원에 비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장소(남천성당 주차장)도 많이 작았고요. 다음번에 행사할때는 좀 더 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p>
<p>종류가 많고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참가자들에게 정보 부족. 책자보다는 부스 안내도, 일정표 등이 곳곳에 크게 있었으면</p>
<p>젊은이들 행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인 것이 아쉬웠습니다. 젊은이들 행사인 만큼 젊은이들 스스로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 진행 및 봉사를 함께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p>
<p>미사와 성체조배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미사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아쉬움이 남았고 만담형식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뒤에까지 내용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지루했습니다!</p>
<p>성당 내부가 작았다. 인원이 많아서</p>
<p>다음 기회에는 준비단계부터 청년들이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일회성 홍보나 친교로 끝나는 잔치가 아닌 이미 있는 단체들을 통한 진지한 지원과 준비로 **교구청년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한다고 느끼고옵니다. 하지만코로나 이후 한번은 필요했던 행사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단톡방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전체상황을 이야기해주시는게 도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사때 자리에 봉사자들 자리나 부스 단체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스티커 나 이름붙인 자리~~~♡ 본당이 없는 타지방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방분들이 미사가 너무 감동이고 부산 교구가 젊은이들을 특히 더 많이 생각하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사때 성시간 안내멘트가 자세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층에 있었을때 아이들이 집중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행사가 너무 길었고 젊은이들이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형식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너무 지루해 함.

부스 운영등 참여 부스와 공연운영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공연팀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생활 성가팀을 초대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구별로 참석인원을 조정해보는것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

교통편은 좋았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여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더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물 지급을 1.5리터 2~3개 부스별로 지급되면** 좋겠습니다 부스에서 바로 마실수있게요. 컵은각자가챙겨오니 물만 큰걸로 챙겨주심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다른곳도 둘러보고싶었는데**, 그러지 못한게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좀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10:30에 도착했음에도 주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푸른나무, 교구청, 골목까지 자리가 없더군요. 마침 인근 초등학교에 주차했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주면 좋았을 것이다. (학교는 평일 9~18시 외에는 주차 가능) 부스, 오픈스테이지_공연, 특별 무대_노래방, 프린지클래스_강의...등 다양한 시도는 **좋았으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하여 프린지클래스는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전 홍보가 충분치 않아 이것이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고, **공연이나 부스활동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부분이 아쉽다. 사전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체적인 진행시간이 너무 길었고 음향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 외부 공연이나 성전내(토크시간) 진행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집중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사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공연참여를 희망했던 아이들이 댄스를 준비하여 신청했는데 심사하는 신부님이 음악전공 하신분이라 안된다고 하여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자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이의 날 하루를 온전히 함께 한 사람으로써 교구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레크레이션 이후로 정적인 프로그램이 쉬는 시간없이 계속되니(그나마 코로나 격리로 한 강의가 비면서 잠시 쉬기는 했지만) 점점 지쳐가고 집중도도 떨어져 다른행동(자거나, 핸드폰 보거나, 친구랑 수다 등)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자리에 어른들이 주최를 하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내년에는 젊은이의 날 행사 관련하여 **년초부터 공모전을 열어 전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젊은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저면적인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꿈을 이루다' 젊은이들이 신앙생활과 더불어 신명나게 놀아보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교구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형식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내년 행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소리(젊은이의 날 행사를 함께 다녀온 후 대화)를 함께 전해본다면,

1. 기념품 :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불필요하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중 텀블러가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차라리 품목을 줄이더라도 괜찮은 기념품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 대상자 : 젊은이의 범위(중,고등,대학생,직장인,학부모)가 넓어서 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거 같아 **대상자를 조금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프로그램 :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과 성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토크(청년들의 에피소드,꿈이야기)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잘 안들리고 화면도 작아서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도 안들었고 주위가 산만하여 집중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후부터 너무 정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라기 보다는 시간의 아까움과 다 하고 오지 못한 개인적인 일들이나 앞두고 있는 시험준비를 하는 시간을 소비했다는 표현들**을 하였습니다.

4. 참석여부 : 내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이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참여를 희망한 친구들은 짧게 체험한 아이들이었습니다.(끝날때 쯤 참석했던 아이나, 중간에 일이 있어 집에 간 아이들) 젊은이들과 이야기 나누어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진행시간은 짧게 프로그램은 체험이나 활동위주의 프로그램들을 희망하였으며 의무적인 참여보다는 자율적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며 힘든 현실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지구나 교구에서 부르는 행사나 참여하는 모임들이 많아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젊은이의 날 행사가 아이들에게 또하나 해결해야 할 의무나 숙제가 아닌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듯 하나 행사에 관련하여 보안 및 수정 부분에 대한 응답이기에 내년 행사준비를 위해 조심스레 적어보았습니다. 큰행사 준비하느라 다들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